경제혁신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보도자료
희망의 대한민국
http://www.motie.go.kr

2015년 10월 14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0.13일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문의 :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 과장 김남정(043-870-5520), 임완빈 연구관(5522)

중소기업 수출애로 지원을 위한 TBT 홍보관 운영

- 중국 등 해외 시험 · 인증 애로 현장 컨설팅 진행! -

□ 국가기술표준원은 '2015 한국전자산업대전'* 개최를 계기로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(이하TBT)의 중요성과 대응방안 등을 알리기 위한 「TBT 홍보관」을 운영한다.

* '15.10.14.(수)~17.(토) 4일간, 일산 킨텍스, 800여개 업체 참여 약 6만여명 참관 예정

무역기술장벽(TBT: Technical Barriers to Trade) : 무역상대국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, 표준,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의 제반 장애요소

○ 최근 자유무역협정(FTA)이 활발해지면서 관세장벽은 낮아지고 있으나, 각 국의 비관세장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.

- 대표적 비관세장벽인 TBT의 경우, 각국이 자국산업의 보호차원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,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, 예산, 인식부족 등으로 정보 획득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.

* 최근 3년간 TBT 통보건수 : ('12년) 2,197건→('13년)2,142건→('14년)2,239건

□ 「TBT 홍보관」에서는 주요 사례 위주로 TBT 정보의 입수과정부터 최종 조치에 이르기까지 TBT 대응 전주기를 수출기업이 알기 쉽게 소개하고, 통상, 표준·인증 등 전문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한다.

○ 특히, TBT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*을 통해 까다로운 시험·인증 등에 따른 애로사항을 진단 후 해결책을 제공한다.

○ 또한, 정부가 추진중인 TBT 대응체계와 지원절차, TBT관련 연구개발(R&D)사업 등을 알리고 TBT 종합정보포털(KnowTBT.kr) 및 비관세장벽포탈(ntb-portal.or.kr) 등 정보마당도 소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사전에 대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.

□ 앞으로도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 수출기업의 TBT 인식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○ 이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* 결과를 반영해 산업별 「TBT 홍보관」 운영 확대, 중소기업 유관기관 설명회 참여 및 TBT 컨소시엄의 협·단체를 통한 중소기업 홍보 정례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지원한다.

* 현장 설문조사 실시(TBT 대응 서비스 경험자 및 무경험자 대상)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 김남정 과장(☎043-870-5520), 임완빈 연구관(☎043-870-552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 「TBT 홍보관」 운영 내용

1. TBT 대응사업 소개 및 TBT 대응사례 홍보

○ 무역기술장벽(TBT)의 정의, 중요성, 구체적인 예

○ TBT 중앙사무국 역할 및 TBT 컨소시엄 지원체계

○ TBT 대응지원서비스, KnowTBT 포털 및 TBT 대응사례 소개

홍보 판넬(안)



2. 현장 TBT 컨설팅

○ 내용 : 해외시험 및 인증획득 관련 애로사항 현장 컨설팅

○ 일정 및 전문가

시간/요일	수	목	금	토
오전(09:30~12:00)	KTR 해외인증전문가		우리기술교역(컨설팅전문기업)	
오후(14:00~16:30)	우리기술교역(컨설팅전문기업)		CCIC KOREA(중국인증전문가)	

3. TBT 대응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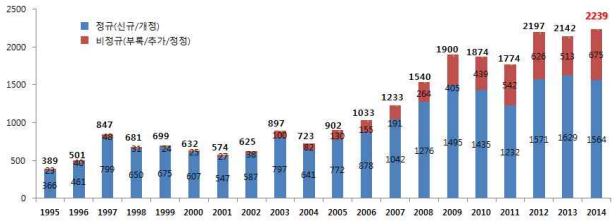
○ 대상 : TBT 대응서비스경험자(60명), 무경험자(40명) 총 100명 대상

참고2 연도별 WTO TBT 통보문 동향

❑ 통보문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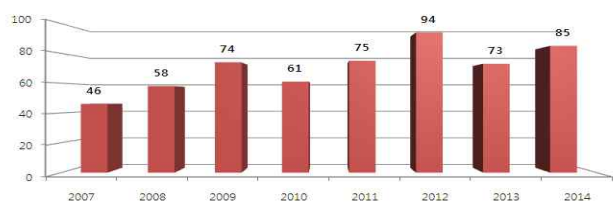
o 1995년부터 완만한 증감을 반복하던 통보 건수는 2005년 이후 증가하였고 **2014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2,239건**을 기록

- 2015년 상반기에는 679건의 정규 통보문을 포함하여 978건 통보



❑ 특정무역현안(STC) 현황

o TBT위원회에서 논의되는 특정무역현안은 2009년까지 빠르게 증가하여 **2012년 최고치인 94건**을 기록하였고 2014년 85건이 논의



참고3 주요 TBT 대응사례

【 TBT 대응사례 】

노르웨이 전자제품 유해 화학물질 함유량 규제

○ **(개요)** 노르웨이는 전자제품 등 공산품에 함유된 유해 화학물질에 농도에 대한 규제 시행(WTO 통보 없음, 시행일: '15.2월)

* 공산품내 브롬계 난연제 2종 물질(decaBDE, HBCDD) 사용금지, 부품별 함유량 기준 (포장재도 포함), EU는 '15.8.21일 시행예정이나 노르웨이는 '15.2.12일 공표 즉시 시행

○ **(애로 사항)** WTO 통보나 의견수렴 없이 시행되어 우리나라 업계의 사전 대응 불가능, 이미 시장판매중인 제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제품 회수 등 후속조치에 대한 정보 부재

○ **(대응 활동)** 공식서한 제출 및 WTO TBT위원회 양자회의 개최('14.3, 6월)

○ **(대응 결과)** EU 전역 시행일('15.8.21일)전까지 규제적용 면제키로 합의

남아공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규제

○ **(개요)** 남아공은 에어컨, 냉장고,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라벨 부착을 의무하는 규제 시행 예정(TBT 통보일: '14.2월, 시행일: '15.11, '16.2, '16.11월)

○ **(애로 사항)** 규제대상 및 기준이 모호하고 라벨링 세부 규정이 없어 규제 시행일전까지 우리 업계의 규제대응 불가

○ **(대응 활동)** WTO 위원회시 양자회의('14.6, '14.11, '15.3월) 및 남아공 규제당국과 현지 면담개최*('15.5월)

* 참석기관: 주남아공대사관, KOTRA 현지 무역관, 우리기업, 남아공 규제당국(NRCS)

○ **(대응 결과)** 우리업계가 과도한 규정으로 지적한 항목 철회('14.12월 개정) 및 6개월 규제시행일 유예키로 합의('15.8월 개정)

* 지속적 대응(의견 제출 6회, TBT 양자 3회) 및 현지 규제당국 면담 추가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당면 애로를 해소한 사례로 평가

인도네시아 제품 라벨링 규제

○ **(개요)** 인도네시아는 전자제품, 통신기기, IT 기기, 자동차 부품 등에 인도네시아어로 된 제품라벨을 제품 및 포장에 영구 부착하는 라벨링 제도를 '1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WTO에 통보 ('14. 4)

* 대상제품 對인도네시아 수출 : 9,100만불('12년)

○ **(애로 사항)** 라벨링 규제는 스티커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, 각인, 인쇄, 접착 방식을 요구하고 있어, 제품 개발기간 및 비용증가 등이 발생하였고, 시행유예기간이 없어 업체들이 대응하는 데 시간 부족

○ **(대응 활동)** WTO TBT 위원회에서 STC 제기('14.6), 양자회의 개최('14.6) 등을 통해 스티커 부착방식 허용 및 6개월 이상의 시행유예 요청

○ **(대응 결과)** 인도네시아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동규제 적용을 하지 않으며, 규제 시행유예 합의

에콰도르 화장품류 라벨링 규제

○ **(개요)** 에콰도르는 화장품류, 헤어제품류 및 세정제품류 등에 대한 강제규제를 개정 시행한다고 WTO 통보('13. 11)

○ **(애로 사항)** 규제 시행이후 통보하여 우리나라 업계의 준비기간이 없었으며, 에콰도르가 지정한 제품인증기관의 제3자 적합성인증서를 제출해야 했으나, 에콰도르에는 시험소가 없어 시험이 불가능한 상황

○ **(대응 활동)** WTO 위원회시 STC 제기 및 양자회의 개최('14. 3),

○ **(대응 결과)** 제조사 시험성적서 허용 및 시행유예 합의